

근로빈곤계층의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수립



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우리는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의 단합된 의지로서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4강 신화와 참여정부의 등장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한 새로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과 균형 잡힌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민이 복지정책의 제공자이면서 수혜자가 되게 하고,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참여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심화를 예방하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곤과 가족해체의 문제에까지 직면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

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자활을 촉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에 힘입어 많은 해결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 전체적인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고학력 청년실업자 및 여성가장·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의 사유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의 규모 또한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탈빈곤 정책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직빈곤계층 및 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욕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연구조사는 한국사회 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빈곤가구에 속한 근로능력자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최초의 전국적인 연구조사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실질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자활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의 규모가 어느 정

도이며,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의 특성 및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현 자활지원제도와 자활지원프로그램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한국사회의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연구조사를 토대로 향후 계속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화 과정과 탈빈곤 경로를 파악하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탈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화 과정과
탈빈곤 경로를 파악하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탈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